

“제2공항 건설, 피해주민 최우선 고려해야”

제11대 도의회 개원·취임 1주년 맞은 김태석 의장

“ 제2공항 결정 주체는 정부 도민의견 알려야 하는 道... 공론화 시도조차 안해 보전관리 조례 9월 내 결정 지난 1년 부끄러움의 연속 리더십 발휘 못해 아쉬워 ”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공론 조사를 거듭 요구해온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공론화는 찬성 반대 단체와 의회, 도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얘기해보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6일 제11대 의회 개원 및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고 정부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책임있는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공론화는 어떤 형태든 도민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중앙 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이고, 책임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거듭 ‘공론조사’ 필요성을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실에서 김태석 의장이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 및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제2공항 건설 관련 공론조사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 여러가지 방법 있을텐데, 의회와 집행부만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찬반 단체들이 의견을 갖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책이든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역기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즉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다.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그렇다면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10월에 고시되면 7월이나 9월에 상정해도 똑같다”며 “하지만 고시가 되면 효력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니 7월이나 9월 내에는 가부가

결정돼야 않겠나”라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일정을 감안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의 연속이었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의원들 사이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며 “그런 결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음을 인정한다”며 도민과 의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halla.com

같은 아픔으로 하나 된 제주-대만

대만 전형정의촉진위원회 4·3평화재단과 협력 약속 진상규명 위한 교류 잇기로

제주4·3평화재단과 대만 전형정의촉진위원회가 대만2·28, 제주4·3 등 과거사 해결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26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대만 전형정의촉진위원회는 이날 양측이 주임위원(장관급)을 비롯해 위상니엔 주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부산총영사, 예홍린·쉬세지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2018년 5월에 설립된 대만 전형정의촉진위원회는 1947년 대만2·28의 역사를 연구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기념물 관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식을 둘러보면서 대만 2·28과 동시기에

발생한 제주4·3의 아픔을 가슴에 새겼다.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이 대만2·28과 제주4·3 등 비극의 역사를 연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교류·협력을 다지며, 과거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현재 4·3특별법 개정 추후와 더불어 중요한 현안이 과거사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이라며 “4·3평화재단은 제주도교육청과 지난해부터 전국교사 1000명씩 초청해 4·3교원직무 연수를 진행하면서 평화·인권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측이 주임위원은 “앞으로 위원회는 2·28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4·3평화재단과 지속적인 교류 및 방문을 통해 임기내 위원회 정관을 건의하기 위한 총괄보고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훈기자



대만2·28 역사를 연구해 온 '대만 전형정의촉진위원회'가 26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안내로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4·3평화재단 제공

어촌 정착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해양수산연구원 내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귀어·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운영되는 전담 기구다. 도시민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귀어·귀촌 관련 직업상담,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의 데이트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정착 귀어인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1명과 직업상담사 1명 등 총 2명을 채용, 배치할 방침이다. 이소진기자

“제주형 치매관리체계 만들자”... 연구 본격

도, 중증환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해 시범 운영 세종-광주시 공동 의사소통 유도 위한 연구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드림(기억드림)’ 프로그램을 올해 도내 요양시설 2개소에 도입해 시범운영(입소자 대상)을 통해 검증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감각 기능을 자

극해 치매에 도움을 주는 ‘가상체험(VR) 가상치매 프로그램’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개발에 착수했다. 도는 이외에도 제주도 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해 치매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12월 서귀포시 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이어 올해는 제주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생활관리사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조사를 시행·완료했으며, 현재 통계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분석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된 프로그램 등은 도내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돌봄문화 함께 실천해요” 29일 '자파리 놀이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19 왓치지컬 자파리 놀이터'가 오는 29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기념광장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2019 왓치지컬 자파리 놀이터'는 제주형 수놓음 돌봄문화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도가 주최하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놓음돌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체적으로 놀이판

을 기획·운영해 다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축제는 풍물패의 길트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전래놀이, 그림리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 참여 가능한 자파리 할라(樂), 전래놀이와 놀이감을 만드는 땀나게 팔라(樂), 폐현수막과 페트병에 그림 그리는 비비작작 걸 자파리 놀이터'는 제주형 수놓음 돌봄문화와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도가 주최하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놓음돌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체적으로 놀이판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소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웅웅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질맛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